



# 계란시장

(단위 : 원/10개)

지역 구분 월일	서울 지역					대구		부산		전주		광주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	특란	대란	특란	대란	특란	대란	특란	대란
9월 2일	400	350	310	280	240	390	340	400	350	400	360	430	380
4	420	360	310	280	240	400	350	410	360	400	360	430	380
12	420	360	310	280	240	400	350	410	360	410	370	430	380
15	420	360	310	280	240	400	350	420	370	410	370	440	380
25	420	360	310	280	240	400	350	420	370	410	370	440	380
79년 8월	293	238	198	164	129	284	235	247	306	291	240	305	205
9월	359	302	262	222	182	352	302	315	370	375	321	380	325
10월	318	268	228	192	156	303	257	270	320	310	275	327	290
11월	236	192	169	142	112	246	199	200	249	244	186	254	216
12월	274	244	244	194	165	275	245	290	254	276	239	283	256
80년 1월	271	241	221	191	161	265	240	275	235	263	233	274	244
2월	340	310	288	258	228	340	316	358	329	350	320	357	327
3월	371	340	310	280	250	363	332	376	346	369	339	355	349
4월	402	357	327	297	266	388	348	403	360	401	358	411	368
5월	381	325	295	265	235	386	336	400	347	386	332		
6월	323	269	236	206	176	325	265	333	373	325	275	358	298
7월	345	290	260	230	194	343	286	353	298	356	295	372	312
8월	383	333	302	272	232	378	328	389	339	375	327	402	347

## 약보합세 예상

예년과는 달리 7월이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9월에 들어서면서 잠시 시장수요가 주춤하는 기미를 보이자 일부상인들의 단합에 의한 난가하락 시도가 있어 경기일부지역에 이중가격이 형성되었다.

물론 특란의 경우 시장가격 50원에 이르면 소비자 저항에 의한 소비위축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금년에 접어들어 생산공급불량이 안정되므로써 예년과 같은 극심한 수요공급불균형 현상은 없었기때문에 물량체화가 없었으나 9월말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중란이하의 출하가 부진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산란계사료생산추세

(단위 : 톤)

종류 \ 월별	1	2	3	4	5	6	7	8
초생추사료	2,438	2,535	4,237	4,789	4,864	3,738	3,235	3,550
산란사료	12,437	80,432	92,281	90,456	97,547	88,534	87,611	92,516

한편 8월이후 잠시 일었던 입추증가 추세는 계속되는 사료가격 앙등으로 다시 누그러지고 있어 채란생산자들의 규모있는 경영을 위해 애로를 타개하고자하는 준비태세가 갖추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금년도 수차에 걸친 사료가격 인상폭을 보면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9월말 현재 약 42~46%가 인상되어 생산비의 약 65%를 차지하는 사료비부담이 경영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제반원료가격 앙등으로 금년중에 다시 약 10%이상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고 보면 채란 양계는 중대한 시련에 부딪친다 하겠다.

예년에는 추석이후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시세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금년에는 생산량의 안정에 힘입어 커다란 폭력없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며 벼 베기철에 노계수요가 증대되는 점을 고려, 생산성이 낮은 환우를 거친 노계는 도태처리해야 할 것이다.

대란가격 월별 추세(서울지역 1979~80년) (단위 : 원/10개)

